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

유 현 희*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신앙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부모가 된 이후 2년 이상 1명 이상의 6세-18세 미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해 온 한부모가족 어머니 10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고,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2개의 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12개의 구성요소는 '홀로 짊어진 슬프고 고된 집', '아버지 부재의 환경을 자책함', '부족한 재정으로 뒷바라지 못하는 애달픈 심정', '피하고 움츠러드는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고군분투',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양육',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자로 빚어짐', '힘과 안식처가 되는 신앙공동체', '공적 지원망은 양육의 보호막', '애물단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됨',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독립하기를 소망함', '고난은 나의 성장과 타인을 품는 자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을 위한 기독교상담과 교회 돌봄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 자녀양육 경험, 기독교 영성, 질적연구,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

* 경남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센터 객원상담원, 제1저자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유현희의 박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현대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형태와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도 이후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황해익 외, 2022). 한부모가족이란 부모의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유기 등으로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자녀의 양육을 모(母)가 맡으면 모자가족으로, 부(父)가 양육자이면 부자가족으로 지칭한다(조홍식 외, 2017). 여성가족부(2024)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인 중 이혼한 경우가 84.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모자 중심가구(모자와 기타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포함)의 비율이 68.7%로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압박과 위협을 경험하고(송미승, 2001; 이은순, 2018), 취약한 주거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며(권주희, 2020; 이한나, 김승희, 2019), 생계에 밀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외, 2018). 또한 김경선(2012)은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의 해체와 가족 구성원의 상실은 한부모가족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삶의 중심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이다(Stadelmann et al., 2010). 황혜원(2024)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나 상실감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생활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역할 과중 등의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현주 외(2013)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모두 문제를 보인다는 시각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현주 외(2013)는 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개인의 내적 보호요인이 이러한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을지라도 따뜻하고 잘 기능하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키고, 부적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한다(류금란, 2019; Masten, 2014).

즉, 역경과 어려움이라는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한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내부자원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Carverk, Scheier & Segerstrom,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과거의 연구들이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가진 취약성, 부적응,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가진 강점, 행복, 심리적 건강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류금란, 2019; 백은영, 2018; 오은규, 2019).

백은영(2018)은 이혼한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회복하는데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류금란(2019)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부모가족 어머니들 중 일부가 신앙의 힘에 의지하여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은규(2019)에 따르면 이혼자들은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신앙생활 및 영성적 대처를 통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삶의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과 영성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학의 대두로 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Seligman(2002)은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을 위한 24가지 성격강점 중 한 요소로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병준(2021)에 따르면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삶의 자세다. 기독교 영성은 전인적으로 영과 몸을 포함하고 하나님, 이웃, 자연과 통합적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신앙체험, 훈련, 봉사를 통해 일생 성장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닮음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형성한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의 전인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다(김규보, 2022; Johnson, 2007). 김규보(2022)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성도는 치유와 회복, 성장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 어머니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상이 과부이다. 구약성경에서 과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alpha\lambda\mu\alpha\eta$ (almānāh, 알마나)의 기원은 불확실하나, 몇몇 학자들은 어근 $\alpha\lambda\alpha\mu$ (ālam, 잠잠하다, 말이 없다)과 연결하여 ‘침묵당한 자’, ‘목소리를 잃은 자’로 해석하기도 한다(VanGemerēn, 2012). 이런 어원적 연결은 그들이 사회적, 법적 발언권이나 보호를 상실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모세오경에서 과부는 우선 보호의 대상이다. 출애굽기 22장 22-24절에서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만약 해롭게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노로 갚으신다고 선언하신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과부는 고아, 나그네와 함께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 삼중군’(the triad of the vulnerable)의 일원이다(VanGemerēn, 2012). 하나님이 친히 과부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로 우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명기 24장 17-21절은 과부를 위한 정의 실현과 적극적 구제를 제도화한 율법 조항이다. 추수 후에는 이삭, 감람, 포도는 과부, 고아,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과부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추수할 때 남은 곡식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 생계 보장을 마련한 것이다. 예레미야 7장 6절, 에스겔 22장 7절, 스가랴 7장 10절,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과부를 억압하는 것은 공동체적 불의, 언약적 타락의 징후로 간주하였고, 참된 신앙과 예배의 열매로서 과부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를 요구하였다. 과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동체의 약자였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언약 공동체의 윤리 시험지와 같은 존재였다(VanGemerēn, 2012).

이런 구약의 율법적 돌봄 사상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된다. 신약성경에서 과부를 지칭하는 헬라어 *χήρα*(chēra, 케라)는 인도유럽어 어근 *ghei-*(비다, 결핍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부를 ‘결핍된 자’ 또는 ‘남겨진 자’로 이해하게 한다(Silva, 2021). 이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상태를 넘어 법적, 사회적 보호자 상실을 의미하며, 곧 무방비 상태임을 나타낸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과부는 종종 연약함과 불완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공동체가 과부를 돌보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사도행전 6장 1-6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그로 인해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건은 공동체 내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이경욱, 2020). 디모테전서 5장 3-16절에서는 ‘참 과부’(ἀληθῶς χήρα)와 젊은 과부를 구분하고 있는데,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먼저 그들이 봉양해야 했다(이경욱, 2020). 이는 교회가 과부에 대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돌봄 원칙을 세운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는 말씀으로 경건의 실천으로서 과부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Silva(2021)에 따르면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과부의 신학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과부를 향해 선포와 치유를 베푸시는 메시아적 사역을 실현하신다. 둘째, 과부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묘사된다. 셋째, 과부에 대한 교회의 돌봄 윤리를 강조한다. 과부를 향한 공동체의 책임은 신약 교회가 공적 신앙과 실천의 장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넷째, 과부를 통해 사회 정의와 경건의 교차점을 보여준다. 과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 사랑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부에 대한 신구약의 통합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첫째,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대상이다. 둘째, 과부를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시험지이다(사 1:23; 약 1:27). 셋째, 예수는 과부를 신앙의 모범(눅 18:1-8), 헌신의 상징(막 12:41-44), 긍휼의 대상(눅 7:11-17)으로 새롭게 조명하신다. 넷째, 신약 교회는 과부를 위한 구조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들을 경건의 시험대로 삼는다(딤후전 5:3-16). 다섯째, 하나님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사 54:5)으로 모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성경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윤리를 적극적으로

로 실천해야 하며, 특히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같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나 봉사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공동체적 사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를 향한 공동체의 태도는 곧 그 공동체의 영성과 신앙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2)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성경적 이해

장은영(2022)은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배우는 곳으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및 정서적 유대는 인간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어머니의 인성,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기술 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경우 가족의 생계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며,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지적한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자 걱정거리는 자녀양육 문제이다(김규림, 2023; 김행섭, 2010).

류금란(2019)은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무관심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정현(2021)에 따르면 자녀 또한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부(父)의 부재로 가족 내 역할 재구조화를 경험하며, 한부모가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전보다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역할 수행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소외감, 사회성 결여, 우울감,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겪기도 하며, 한쪽 부모에 대한 상실감,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분노, 과잉행동, 비행문제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Amato & Keith, 1991; Kelly, 2000). 자녀들이 경험하는 이런 스트레스는 곧 한부모에게 영향을 미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구조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부모가족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그들이 가진 신앙과 영성임을 밝혔다. 유순희(2012)는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회복탄력성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 이혼으로 인한 역경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고, 류금란(2019)의 연구에서는 신앙이 있는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걱정과 불안을 기도로 털어내었고, 자녀와 신앙생활을 같이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별히 기독교인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이다(이성희, 김지현, 2022).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다(원영선, 오윤선, 2023). 김도혁(2008)은 한부모가족 어머니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성품과 태도는 자녀의 인격을 비롯한 가치관, 신앙심, 생활태도 등 전인적인 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경우 양부모가족 어머니에 비해서 자녀양육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라는 말로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전요섭, 2013; Mounce, 2009), 아버지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전요섭, 2013; Jackson & Lake, 1922). 따라서 디모데가 모자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행 16:1-2),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딤후 1:5),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롬 16:21; 고전 16:10),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빌 2:22),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살전 3:2)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전요섭, 2013). 이는 한부모가족 어머니일지라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 어머니에 대한 교회 돌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과부를 돕는 구체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성격의 십일조이다(김영한, 2022). 이는 매 삼년마다 따로 모아 드리는 또 다른 십일조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것이다.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8-29). 또 다른 하나는 추수 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는 제도로, 이는 추수 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남겨 놓는 아량이었다(김영한, 2022).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열매도 버려두라고 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돕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자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권혁승, 2013).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공동체 지향적이고, 그것의 기본은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관심과 배려였다.

구약에서 행해진 과부에 대한 돌봄은 사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실천함으로써 계승되었다. 초대 교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과부들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행 6:1). 주목해야 할 점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과부를 구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초대교회는 과부 명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그들을 도왔다(표재현, 2007).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딤후 5:9-10). 과부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을 뜻한다(표재현, 2007). 초대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했다. Dodds(2021)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적극적으로 과부를 돌보았는데, 물질적인 혜택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줄 수 있었던 소속감이었다고 보았다. Stark(1996)도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로 가득 찬 도시에서 신개념의 확장된 가족을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구제 뿐 아니라 희망도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즉각적 애착관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감과 소속감도 제공했다.

Calvin(1986/1559)은 교회론에서 교회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각각의 성도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하였다. Calvin(1986/1559)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위탁하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Calvin(1986/1559)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구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영적 구제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양혁승, 2011).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Calvin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의 노력은 단순히 육적인 채움을 넘어선 영적인 채움까지 나아가는 통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양혁승, 2011).

오늘날에도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사회적 약자이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정서 및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어려움과 역할 재조정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도미향 외, 2024; 성정현, 2021).

박영범(2022)은 교회는 돌봄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부여받았으며, 오직 교회만이 영속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영원한 생명수(요 4:13-14)인 예수를 통해 변화와 회복의 동력을 얻기 때문에 한 시대에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제공해 주는 세상의 제도 및 복지와 다르다는 것이다(박영범, 2022). 따라서 교회의 돌봄은 세속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사람을 도구

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실천이다(이효정, 김규보, 2024). 그러므로 교회는 한부모가족이 현재의 상황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를 위한 교회의 돌봄은 그들의 경제적·신앙적·사회적·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에는 예배, 성경공부, 기도 모임 등의 영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구역이나 셀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돌봄, 상담을 통한 정서적 돌봄, 후원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제적 돌봄 등이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이런 교회의 돌봄은 성도나 교회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물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조모임을 후원하며, 교회 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돌봄은 국가의 한부모가족 정책을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내며,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병덕(2024)은 교회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회 간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회 간 협력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회들은 서로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손병덕, 2024). 교회 간 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회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부모가족의 문제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그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돌봄 사각지대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교회공동체는 한부모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써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해 자료가 포화되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 10명을 목적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신앙경력이 5년 이상이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이다. 둘째, 한부모가 된 시점부터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이다. 셋째, 유아나 성인자녀가 있더라도 6세-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이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 받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B시의 3개 교회, D시의 2개 교회, J시의 3개 교회, P시의 2개 교회 등 10개소의 교회 사역자 및 교회 관계자들을 통해 추천받았으며, 이러한 방법과 병행하여 교회 내에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해 모집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원활한 연구 참여자 모집과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세)	학력	직업	자녀연령 및 성별	한부모가 된 사유 및 기간	종교	신앙 경력(년)
1	53	대졸	교육전도사/ 의상실 운영	19세/남 17세/남	이혼/12년	기독교	33
2	32	대학교 휴학	헤어 디자이너	14세/여	미혼모/14년	기독교	12
3	47	전문대졸	한의원 직원	18세/남 16세/남	이혼/11년	기독교	13
4	46	전문대졸	간호조무사	18세/여 15세/남	이혼/12년	기독교	15
5	51	대학교 재학	무직	23세/여 20세/남 11세/여	재혼 후 이혼/3년	기독교	21
6	57	고졸	요양보호사	31세/여 29세/여 16세/여	이혼/13년	기독교	37
7	50	대졸	교육전도사	17세/여	이혼/17년	기독교	50
8	51	중졸	요양보호사	19세/여 17세/여	이혼/16년	기독교	6

9	42	대학교 재학	방과 후 교사	17세/여 13세/남	이혼/7년	기독교	32
10	50	대졸	무직	17세/남 15세/여 12세/여	사별/8년	기독교	28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53세의 어머니로 12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폭력적인 전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참고 견뎠으나,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던 자신을 전남편이 집에서 내쫓은 일을 계기로 수년간의 별거 생활 이후에 이혼하였다.

(2)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32세의 어머니로 14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3은 47세의 어머니로 가정에 무관심했던 전남편과의 갈등으로 2년간의 별거 생활을 거쳐 11년 전에 이혼하였다.

(4)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46세의 어머니로 결혼 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전남편과의 갈등으로 12년 전에 이혼하였다.

(5)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5는 51세의 어머니로 첫 결혼은 전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 4년 만에 이혼하였고,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13년 전에 재혼하였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이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3년 전에 다시 이혼하였다.

(6)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57세의 어머니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많은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 빚까지 쓰게 되면서 사채업자들을 피해 오랜 기간 전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였다. 결국 전남편이 참여자 명의로 대출과 카드 빚을 내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켜 13년 전에 이혼하였다.

(7) 연구 참여자 7

연구 참여자 7은 50세의 어머니로 전남편과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

다가 단순히 홑김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전남편이 구청에 독단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17년 전에 이혼하게 되었다.

(8)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8은 51세의 어머니로 전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갈등으로 16년 전에 이혼하였다.

(9)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9는 42세의 어머니로 전남편의 알코올 의존증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갈등으로 7년 전에 이혼하였다.

(10)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0은 50세의 어머니로 토목기사였던 전남편이 8년 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남편과 사별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으로, 개인별로 2-3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1회당 면담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자료분석은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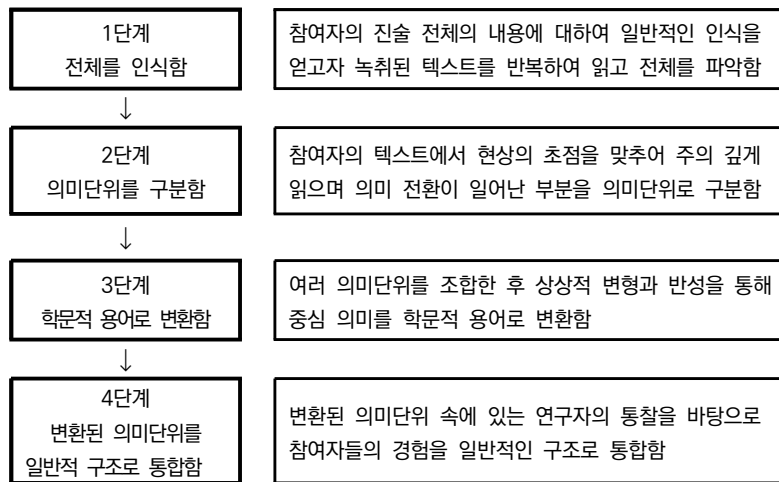
Giorgi(1985)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분석 방법을 다음의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연구자 참여자가 기술한 전체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현상학적 환원으로 검토하며 전체를 읽어가면서, 학문적 관점에서 의미가 전환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해 의미 단위를 구분한다.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추출한 의미단위에 대해서 질적연구전문가에게 검증을 받는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환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연구자의 반성과 자유 변경의 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한다. 이때 적절한 학문적 용어를 찾기 어렵다면 상식적 언어를 사용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다. 앞에서 도출된 변환된 의미단위에 담긴 연구자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를 일반적인 구조로 종합하고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여러 개의 의미단위가 모여 있는 것으로 그 안에서 여러 구성요소들 간에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관성이 합당한 지에 대해 질적연구전문가를 통해 검증한다.



(그림 1)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

3.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 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은 12개의 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2개의 구성요소는 ‘홀로 짊어진 슬프고 고된 짐’, ‘아버지 부재의 환경을 자책함’, ‘부족한 재정으로 뒷바라지 못하는 애달픈 심정’, ‘피하고 움츠러드는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고군분투’,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양육’,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자로 빚어짐’, ‘힘과 안식처가 되는 신앙공동체’, ‘공적 지원망은 양육의 보호막’, ‘애물단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됨’,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독립하기를 소망함’, ‘고난은 나의 성장과 타인을 품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 참여자별 자녀양육 경험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홀로 짝어진 슬프고 고된 짐	홀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버거운 짐	홀로 책임지는 양육의 부담	어린 나이에 홀로 진 무거운 짐	자녀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	혼자 짊어지는 양육의 책임감	자녀 문제를 혼자 결정하는 서러움
	일도 쉽다 할수 없는 돌봄의 굴레	병으로 아파도 할수 없는 자녀돌봄	늦은 시간에는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음	-	아픈 아이 때문에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감	-
	일과 교회 봉사로 방치되는 아이	-	늦은 밤까지 방치된 아이 때문에 속이 탐	1인 3역의 체력 고갈로 돌봄이 어려움	직장 일로 돌보지 못해 아이를 망친 것 같음	보살피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두어 가슴 아픔
아버지 부재의 환경을 자책함	평범하지 않은 환경으로 준 상처가 죄스러움	-	사람들 앞에서 언니라고 부르게 한 것이 죄스러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딱함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불쌍함	이혼 과정에서 상처를 준 것이 괴로움
	아버지 부재의 자녀가 걱정되고 안타까움	-	애정결핍으로 이른 이성 교제를 하는 딸이 걱정됨	아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아버지가 없어 답답함	아들이 남성으로 잘 자랄지 의문임	조언하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안쓰러움
부족한 재정으로 뒷바라지 못하는 애달픈 심정	양육비 제도는 있으나 마나	과로힘이 두려워 양육비 소송을 못함	-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를 양육함	질병을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음	-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지원 부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움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생활	-	-	현금 지원이 적어 양육비가 부족함
	양육비 부족으로 부실한 뒷바라지	생활비 지원을 못해줘서 자괴감이 듦	학원을 못 보내 성적이 나쁜 것 같아 속상함	용돈을 못 줘서 자책이 됨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보내 가슴 아픔	월세와 생활비 지원을 못해 줘서 무능함을 느낌

피하고 움츠러 드는 대인관계	형편이 알려 질까봐 관계를 끊고 피함	-	쳐다보는 눈빛이 불편해 사람을 피함	-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 인맥만 남음	이혼 질문에 상처 받아 교회를 떠남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고군분투	속삭이는 자녀로 비통한 마음	아이의 거친 행동으로 우울증이 있음	아이와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음	아이와의 갈등으로 소통이 단절됨	-	예민하고 게임에 집착하는 아이 때문에 진이 빠짐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로 애끊는 심정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아이 때문에 괴로움	-	아이의 신앙을 다잡으려고 혼냄	-	신앙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화를 내 눈치만 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양육	아이 성장은 내 능력 밖의 일	신앙으로 양육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임	화내고 잔소리 하는 노력은 사이만 나빠짐	아이는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음	-	아이 문제 해결은 내 능력 밖의 일임
	양육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	말씀의 은혜로 아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	어려움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귀 기울임	아이 신앙 문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기도의 끈만 붙들	기도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자로 빛어짐	일상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감	가진게 없어도 하나님이 든든한 백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낌	삶을 책임 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	믿음이 흔들릴 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불드심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통로	기도하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심	작은 신음소리 에도 응답하심	생각지 못한 부분 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심	기도할때 마다 후원금이 들어와서 버터냄
	찬양으로 얻는 은혜와 위로	차 안에서 찬양으로 충전되고 힐링됨	힘들 때 듣는 찬양으로 마음이 정화됨	찬양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음	평소에 가까이 한 찬양이 영적인 힘이 됨	찬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음

	존중과 기다림의 양육 방식으로 변화됨	시간이 해결 해주니 존중과 기다림이 필요함	상담 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을 표현함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깨달음	신앙으로 안정을 찾으며 수용하고 인내함	목자님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배움
힘과 안식처가 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섬김은 힘과 보탬이 됨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아이가 성장함	교회의 후원금이 양육에 보탬이 됨	교인들의 기도와 섬김이 아이의 지지자원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힘이 됨	사랑방 모임에서 아이를 챙겨줘서 감동이 됨
	안식처가 되는 사랑과 돌봄의 신앙 공동체	사역자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음	-	목장모임으로 감정의 해소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함	목자 목녀님이 친정 부모님 처럼 사랑해주	이혼의 상처가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위로로 회복됨
공적 지원망은 양육의 보호막	양육을 돕는 복지 안전망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함	국가 지원의 상담으로 아이와의 갈등을 해결함	차상위 계층 지원이 양육에 도움됨	복지 기관의 후원금으로 아이가 꿈을 키움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가족 전체가 혜택 받음
애물단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됨	자녀 양육이 삶의 목표와 원동력	성인이 될 때 까지는 돌보려 아파도 버텨냄	아이가 내 삶을 방탕하지 않게 붙잡아 줌	아이 때문에 바르게 열심히 살았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표	아이를 잘 양육 하려고 상담을 공부함
	아이 문제가 신앙 성장의 통로	아이 문제의 기도와 응답으로 신앙이 성장함	양육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통로	간절함 때문에 열심히 신앙 생활함	아이 때문에 기도가 늘어나 하나님을 체험함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함
	아이는 지친 삶에 활력소가 되는 동역자	아이는 우여 곡절을 함께 지나온 동지	아이가 나를 성장시킴	아이가 동역자로 느껴짐	부족한 나에게서 바르게 자라서 기쁨	사랑의 표현을 해 주는 아이가 지친 삶의 활력소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독립하기를 소망함	자녀의 삶이 신앙 위에 세워지길 소망함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길 원함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소망함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순종하길 원함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함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원하는 일을 하길 소원함

	믿음의 본으로 신앙을 잇는 사명	늘 기도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줌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짐	손주까지 3대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	믿음의 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음
	자녀의 독립이 인생의 목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직장을 갖기를 소원함	-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독립하길 소망함	아이를 잘 독립 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임	아이는 때가 되면 독립해야 함
고난은 나의 성장과 타인을 품는 자원	양육의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됨	고난으로 교만을 깨닫고 겸손을 배움	고난으로 순종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냄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	고난으로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짐	-
	타인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상황이 공감됨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대학에 진학함	같은 처지의 한부모를 위로하고 돕고 싶음	고난중에 있는 한부모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음	상담센터를 차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참여자 9	참여자 10
홀로 짊어진 슬프고 고된 짐	홀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버거운 짐	혼자 책임져야 하는 슬픈 현실	끝까지 혼자 책임지는 양육의 버거움	바윗돌 같은 양육의 짐에 눌림	아이를 책임지려 내 인생을 포기함	아이 문제를 상의할 남편이 없어 상심함
	일도 쉽다 할수 없는 돌봄의 굴레	아이를 키우려고 파트타임 일만 함	-	아픈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포기함	사고치는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둠	아픈 아이 때문에 실 수가 없음
	일과 교회 봉사로 방치되는 아이	교회 봉사로 아이를 방치한 것이 후회됨	-	일과 교회 봉사로 아이에게 신경 못씀	혼자서 챙겨먹는 아이가 안쓰러움	교회 봉사로 내팽개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 부재의 환경을 자책함	평범하지 않은 환경으로 준 상처가 죄스러움	아이의 문제행동이 환경 탓인 것 같아 가슴 아림	아이를 더 강압적이고 엄하게 키움	이혼 가정의 환경을 준 것이 죄책감	평범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해 한이 됨	-

	아버지 부재의 자녀가 걱정되고 안타까움	무관심한 아버지를 그리워 하는 아이가 불쌍함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가 가여움	아버지를 그리워 하는 아이에 가슴이 미어짐	아버지와의 활동을 못하는 아들에게 미안함	아들이 남성 다음이 없을까봐 걱정됨
부족한 재정으로 뒷바라지 못하는 애달픈 심정	양육비 제도는 있으나 마나	법적인 양육비도 형편이 어렵다고 주지 않음	양육은 내 몫이라 애초에 기대를 안함	양육비 논쟁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포기함	양육비를 안 줘도 무직이라 소송을 못함	-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 신청을 포기함	지원 기준을 맞추려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함	보잘 것 없는 집 한채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됨	지원이 없어 사교육은 꿈도 못 꿈	-
	양육비 부족으로 부실한 뒷바라지	부족한 용돈으로 알바하는 미성년 아이로 애를 태움	학원을 못 보내 직접 가르치니 사이만 나빠짐	아이의 교육비가 부담됨	학원을 못 보낸 아이의 자퇴가 가슴 미어짐	-
피하고 움츠러 드는 대인관계	형편이 알려 질까봐 관계를 끊고 피함	상대적 박탈감으로 친구와 연락을 끊음	이혼 후 친구 모임을 피함	이혼 후 내 이야기 하기가 꺼려짐	사생활을 물어 볼까봐 깊은 관계를 피함	불쌍하게 보일까봐 새로운 관계를 피함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고군분투	속삭이는 자녀로 비통한 마음	자해하고 폭력쓰는 아이 때문에 참담함	귀가와 외박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것이 진저리 남	-	사고치고 대드는 아이 때문에 역장이 무너짐	평범하지 않은 자녀 때문에 애가 탐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로 애끓는 심정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이가 안타까움	아이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 생활로 다툼	아이가 신앙 없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픔	아이의 신앙 생활이 기도 제목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 때문에 애가 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양육	아이 성장은 내 능력 밖의 일	말씀과 기도로 양육 했지만 앞날은 하나님의 주관임	아이는 내 뜻대로 안되는 걸 절실히 느낌	모범적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안 됨	평범하게 자라는 것도 쉽지 않음	바르게 키울거라 장담 했지만 생각대로 안 됨

	양육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	기도와 말씀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	기도로 부르짖고 때 쓰면 하나님은 내 피난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양육의 짐을 맡김	-	아이의 정신적 문제 앞에서 기도밖에 할수 없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자로 빚어짐	일상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동행으로 하루를 버텨냄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로 지금까지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라는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	막막한 미래에도 오늘을 무사히 마친 것이 감사함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변함없이 붙드심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자녀의 우울증이 완화되고 진로를 인도하심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이 채워짐	기도할때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됨	절망의 끝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음	아이가 기도 덕분에 무탈하고 보호받음
	찬양으로 얻는 은혜와 위로	찬양대에서 연주 하면서 기쁨이 충만함	힘들때는 찬송가 가사가 위로가 됨	찬양대를 섬기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	틈만 나면 듣는 찬양이 힐링 포인트	성가대를 섬기면서 즐겁고 행복함
	존중과 기다림의 양육 방식으로 변화됨	양육은 인내와 기다림을 훈련하는 과정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라도 사과해야 함	신앙으로 상처가 회복되어 사랑하고 수용 하게 됨	잔소리 보다 지켜보고 기다림	간섭을 줄이고 스스로 하도록 기다림
힘과 안식처가 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섬김은 힘과 보탬이 됨	분기별 교회 후원금으로 숨통이 트임	사역자와 교인들의 아이를 향한 관심이 힘이 됨	-	교회의 명절 후원금에 감사함	-
	안식처가 되는 사랑과 돌봄의 신앙 공동체	목사님의 무한한 수용에 영적인 힘이 생김	사역자 언니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창구	셀모임의 말씀과 중보 기도가 영적인 힘이 됨	힘들때 셀 식구들의 위로와 섬김으로 버텨냄	크리스천 친구가 기도 해주길 지지해줌
공적 지원망은 양육의 보호막	양육을 돕는 복지 안전망	-	드림 스타트의 상담이 아이에게 도움됨	-	재능있는 아이에게 국가지원이 있어 안심됨	-

애물단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됨	자녀 양육이 삶의 목표와 원동력	속삭이는 아이도 끝까지 품고 감	아이 때문에 힘든 일도 참고 견뎌	양육의 갈급함이 힘든 상황을 이기는 원동력	힘들어도 아이 성인될 때까지 버틸려고 이를 악물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육함
	아이 문제가 신앙 성장의 통로	아이 문제를 의논할 데가 없어 하나님께 매달림	의지할 곳이 하나님 밖에 없어 믿음이 단단해짐	아이의 자살 시도가 신앙 생활의 계기가 됨	시간이 갈수록 자녀 문제는 더 하나님께 맡김	아이 문제로 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짐
	아이는 지친 삶에 활력소가 되는 동역자	나의 삶을 존경 한다는 아이의 말에 힘이 남	별난 아이에 비하면 잘 자라서 감사함	아이의 감사와 사랑의 문자가 가장 좋았음	뒷바라지 못한 아이가 체육 영재에 선발되어 대견함	곁에 있는 아이가 고맙고 든든함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독립 하기를 소망함	자녀의 삶이 신앙 위에 세워지길 소망함	연젠가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기대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길 기도함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삶을 누리길 원함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길 소원함	신앙의 백그라운드 운드를 만들기를 바람
	믿음의 본으로 신앙을 잇는 사명	자녀의 구원을 위해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함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역할임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려면 본이 되어야 함	신앙의 유산을 위해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함	잔소리 보다 기도하는 엄마가 되려고 함
	자녀의 독립이 인생의 목표	아이의 독립이 가장 큰 소원임	아이를 독립 시켜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됨	-	자퇴한 아이가 제 앞가림 을 했으면 좋겠음	아이의 독립이 가장 큰 목표
고난은 나의 성장과 타인을 품는 자원	양육의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됨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함	하나님만 의지 하라고 고난을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원이 됨	시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음	고난이 하나님과 가까워 지는 계기가 됨
	타인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	노후에 선교지 에서 봉사와 복음 전하고 싶음	양육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함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싶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이해되어 돕고 싶음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 하게 됨

(1) 홀로 짊어진 슬프고 고된 짐

참여자들은 이혼과 사별 등으로 인하여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양육의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몸이 아파도 양육을 쉴 수가 없었으며, 자녀를 돌보느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조차 할 수 없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울러 교인으로서 신앙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교회봉사에도 바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어 홀로 지는 양육의 짐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홀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버거운 짐', '일도 쉽다 할 수 없는 돌봄의 굴레', '일과 교회봉사로 방치되는 아이'로 도출되었다.

남편도 있고 해서 같이 양육을 했으면 덜 힘들었을텐데. 끝까지 오롯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다 책임지고 결정해야 된다는게 그게 버겁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참여자 7)

막내가 어릴 때는 제가 식당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밤늦게 일을 마쳤는데 그때 제가 또 미련해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애하고 같이 있어 줘야 했는데 옛날부터 교회봉사하던 걸 못 버려서 주일에도 교사하고 찬양대 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종일 교회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엄마를 교회에 뺀 느낌도 드는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애하고 같이 있어줘야 했는데. 어린 애를 혼자 방치한 것이 마음 아프고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되고 그래요. (참여자 6)

(2) 아버지 부재의 환경을 자책함

한부모가정의 환경에서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원에 한계와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이 부족하고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꼈으며, 아버지가 부재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으로 준 상처가 죄스러움', '아버지 부재의 자녀가 걱정되고 안타까움'으로 도출되었다.

아무래도 맨 처음 아이들 데리고 올 때는 그렇잖아요. 완전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양육을 받는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혼자서 키우다 보면 제약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짠했죠. (참여자 3)

애가 돌 되기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얼굴을 몰라요. 이혼한 후로 한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애를 보면 짠하고 그런 마음이 많죠.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컸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놀러 간다고 하면 애가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참여자 7)

(3) 부족한 재정으로 뒷바라지 못하는 애달픈 심정

참여자들은 전남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부족한 재정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으로서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조차도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체감하였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부족으로 자녀를 충분히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자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과 죄책감을 느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양육비 제도는 있으나 마나’, ‘국가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양육비 부족으로 부실한 뒷바라지’로 도출되었다.

양육비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죠. 이혼할 때 서류상에는 애가 둘이니까 60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하여간 서류상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거든요. 애들 아빠가 이제 성격상 결함이 있으니까 양육비 달라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고 또 친정 집도 알잖아요. 거기 가서 행패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싫어서 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건 안한 거죠. (참여자 1)

마음이 많이 아프죠. 솔직히 제가 아이들 학원도 못 보냈고. 예전에 학원을 보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겠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원을 못보냈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공부를 포기해 버리더라구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자퇴까지 했잖아요. 그때 학원을 좀 보내 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자책이 되기도 하고. 애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참여자 9)

(4) 피하고 움츠러드는 대인관계

참여자들에게 이혼과 사별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자 깊은 상처로 남은 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상실의 경험 이후에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양자이자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역할의 부담으로 정서적 혼란과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를 피하고 움츠러들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형편이 알려질까봐 관계를 끊고 피함'으로 도출되었다.

처음에 이혼하고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친구들 모임도 피했어요. 동창들 모임 있다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게 되고. 내 주위에 상황을 아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 7)

(5)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고군분투

참여자들은 열악하고 녹록지 않은 양육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했으나, 기대한 대로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자녀가 기대와 달리 빠르게 성장하지 않거나 신앙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참여자들은 자녀를 설득하거나 꾸짖으면서 고군분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였고, 이에 참여자들은 아이는 내 생각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속삭이는 자녀로 비통한 마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로 애끓는 심정'으로 도출되었다.

우리 큰애가 사고를 많이 쳐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중략) 잠깐 힘 든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너무 장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왔었고... (중략)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한테 막 함부로 대할 때 그럴 때 너무 힘들었고. (참여자 9)

큰애는 교회를 잘 안 가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같이 가자고 계속 꼬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숙제예요...(중략) 아이들이 믿어야지 완전하게 내 할 일이 끝난다 그 생각 때문에 애를 막 닦달하기도 했었고 그랬죠. (참여자 3)

(6)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양육

참여자들은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기대한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성장은 결국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자녀양육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아이 성장은 내 능력 밖의 일’, ‘양육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도출되었다.

저도 애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처도 생기고 또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의지가 많이 강했어요.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근데 아이들도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둘째 아이가 작년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참여자 10)

(7)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육자로 빚어짐

참여자들은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은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 또한 참여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자녀양육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힘들 때는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양육방식은 자녀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 '기도는 문제해결의 열쇠', '찬양으로 얻는 은혜와 위로', '존중과 기다림의 양육방식으로 변화됨'으로 도출되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도 제가 잘 견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참여자 6)

재정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재정들이 채워졌어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말도 안되게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긴다든지 근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 주신 거죠... (중략) 너무 막막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엎드렸고 울부짖었고 그렇게 하면 항상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 주셨고. (참여자 2)

신앙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거죠. (참여자 4)

(8) 힘과 안식처가 되는 신앙공동체

신앙공동체의 정서적·물질적·영적 섬김은 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힘과 보

탐이 되었다. 신앙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은 참여자들이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교회공동체의 섬김은 힘과 보탬이 됨', '안식처가 되는 사랑과 돌봄의 신앙공동체'로 도출되었다.

애들이랑 같이 목장모임을 가게 되면은 옆에서 이제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아이들한테 학교 일정이나 이런 게 생기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우선적이고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씩 필요한 것들을 사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챙겨주시죠. 제가 못 챙기는 그런 거 바빠서 못 챙기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챙겨주시고. (참여자 3)

우리 목사님은 딸처럼 대해 주세요. 우리 목녀님은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애들은 어떤지 물어봐주시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 아빠 곁에 있는 느낌이죠...(중략) 우리 목녀님이 항상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손 잡고 기도해 주시고. 제일 지지해 주는 분이었고. (참여자 4)

(9) 공적 지원망은 양육의 보호막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국가와 복지기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국가와 복지기관의 공적 지원은 참여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양육을 돕는 복지 안전망'으로 도출되었다.

시청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한부모가족이니까 거기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 피아노 강습 지원도 받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영어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못하는 학습적인 부분도 지원 받고 그리고 가족여행 가라고 글램핑장도 지원 받았고 가족사진도 지원 받았어요...(중략) 제가 해 줄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딸기 농

장도 가고 글램핑장도 가고. 글램핑장 가는 것 엄청 기대돼요. (참여자 5)

(10) 애틀단지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됨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애틀단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오히려 자신을 지탱해 준 삶의 이유이자 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했으며, 자녀를 향한 책임감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들었으며, 신앙생활에 더욱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신앙을 붙들고 버텨낸 고된 양육의 시간 속에서 자녀가 어느덧 자신의 동역자로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는 험난한 인생 여정을 함께 통과해온 동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자녀로 인해 참여자들은 깊은 위로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자녀양육이 삶의 목표와 원동력', '아이 문제가 신앙 성장의 통로', '아이는 지친 삶에 활력소가 되는 동역자'로 도출되었다.

딸을 키워야 되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 딸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참여자 7)

제 생일날 우리 큰딸이 제 카톡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도 엄마한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 생일 축하해. 내가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는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잘 받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엄마 딸로 태어나게 해 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맙고 좋다. 엄마 사랑해. 고마워. 제 생일날 새벽에 이런 장문의 문자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참여자 8)

(11)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독립하기를 소망함

참여자들은 자녀의 삶이 신앙 위에 세워지길 바랐으며, 신앙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

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어머니인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독립시키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자녀의 삶이 신앙 위에 세워지길 소망함', '믿음의 본으로 신앙을 잇는 사명', '자녀의 독립이 인생의 목표'로 도출되었다.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물려 줄 것이 없어요. 물려줄 게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잘 살아야겠죠. 제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8)

우리 애들이 앞으로 잘 자라서 나한테서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독립을 잘 시키는 게 나의 가장 큰 목표죠. 아이들이 빨리 독립해서 자기들 삶을 사는 거. 어쨌든 그전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참여자 10)

(12) 고난은 나의 성장과 타인을 품는 자원

참여자들이 홀로 자녀양육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왔던 시간들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난은 참여자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의 통로가 되었다. 아울러 참여자들이 겪은 고난은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 구성요소는 '양육의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됨', '타인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쾌락을 좇아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 (참여자 6)

나도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가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참여자 8)

2) 연구 참여자 경험의 일반적 구조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이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여겨졌다. 남편 없이 모든 양육 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상황은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의하거나 조언을 구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질병으로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쉴 수 없었고,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느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은 구직에도 제약을 주었고,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생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경제활동, 자녀양육, 교회봉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참여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녀돌봄에 소홀함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부모가정의 환경에서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자원에 한계와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부족하고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염려하며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늘 걱정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 저린 아픔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복지지원조차 교육비나 사교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를 충분히 뒷바라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혼과 사별로 인한 상실의 충격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요인이 되었다. 친구모임이나 사회적 만남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자신의 형편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대인관계를 끊고 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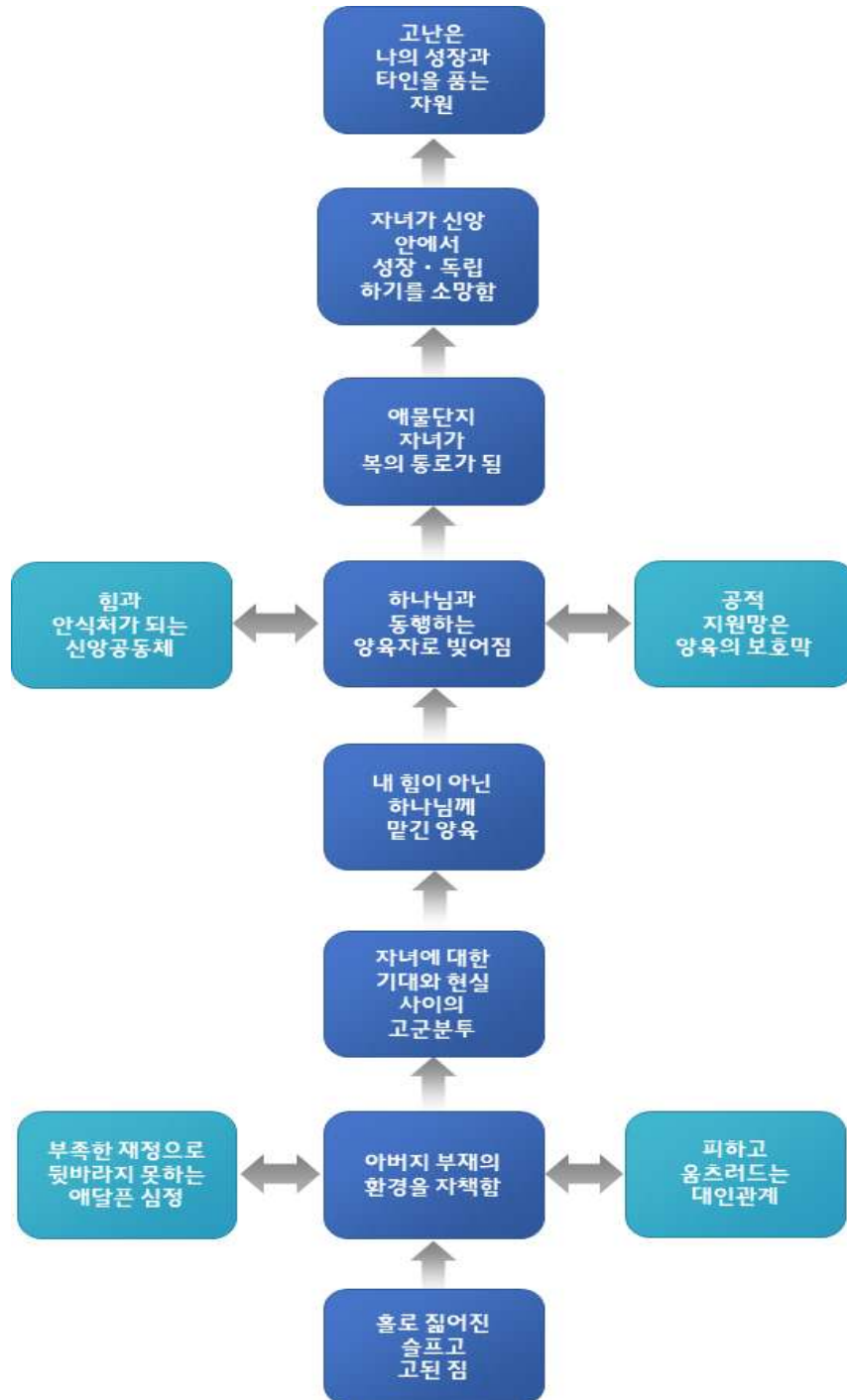
그런 와중에도 참여자들은 신앙 안에서의 자녀의 바른 성장과 독립을 소망하며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 자신과의 가치관 충돌, 정서적 불안정, 신앙적 무관심 등을 보일 때, 참여자들은 자녀문제로 고군분투하며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참여자들이 자녀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힘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양육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자들은 점차 이전의 혼계하고 잔소리하던 양육방식에서 벗어나 존중과 기다림의 양육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신앙공동체의 섬김과 돌봄은 참여자들에게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원이자 영적인 안식처가 되었다. 국가 및 복지기관의 공적인 지원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한 보호장치로 작용하였다. 부족하긴 했지만,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어 참여자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자녀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 때문에 열심히 바르게 살 수 있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였다. 어느새 훌쩍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처럼 느껴졌으며,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자녀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신앙의 유산을 잇겠다는 책임감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긴 시간 양육의 고난을 견뎌 온 참여자들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됨을 깨달았다. 고난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이혼, 사별 등의 아픔으로 인해 깊은 상실감, 고립감, 사회적 편견 등을 경험하며, 그러한 고난은 단순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 정체성과 존재의 흔들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3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실을 회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다. 이는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세워져서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구성요소를 통합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일반적 구조로 도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의 일반적 구조

III. 닫는 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고유한 경험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앙과 영성이 어떻게 발현되며, 어떠한 고유한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과 영성은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참여자들의 생생한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상담 및 교회의 돌봄 사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교회공동체 내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역시 자녀양육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물질적·정보적 지원을 포함한 교회의 다각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을 위한 기독교상담과 교회공동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돌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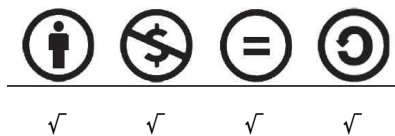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연구 참여자 10명의 표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어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혼모와 사별로 한부모가 된 경우가 각각 1명씩만 표집되었다.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과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 등에 따라 자녀양육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10명의 연구 참여자 경험을 분석한 질적연구로서, 전체 기독교 한부모가족 어머니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별, 이혼과 미혼모, 별거와 같은 다양한 원인별로 연구 참여자를 세분화하여 자녀양육 경험을 분석한다면 한부모가족 어머니 전체에 대한 기독교상담 개입 자료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나 성인 자녀가 있더라도 6세-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영아나 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어머니 또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자녀 연령대에 따른 양육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5년 이상의 기독교 신앙경력이 있는 한부모가족 어머니로서 그들의 신앙과 영성이 자녀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신앙의 연수, 신앙적 체험, 현재의 영적 상태 등이 자녀양육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신앙의 연수, 개인의 영적인 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자녀양육 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면 교회의 영적 지원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최근 부자가족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모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독교 한부모가족 아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5년 11월 0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권주희 (2020). 한부모 가정의 양육스트레스 경험: 단일 사례연구. **명상심리상담**, 24, 53-65. <https://doi.org/10.12972/mpca.20200020>
- 권혁승 칼럼 (2013. 11. 6).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성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 61). **크리스천 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7990>
- 김경선 (2012). 여성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림 (202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가구의 양육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보 (2022).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도혁 (2008). 한부모 가정의 역기능성 치료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방안.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한 (2022). 사회적 소외자와 한국교회 대책: 신학적 성찰.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22, 27-61.
- 김행섭 (2010). 여성 한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성인애착과 가족탄력성 및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http://dx.doi.org/10.18205/kpa.2013.18.1.007>
- 도미향, 강기정, 박경애, 이무영, 정지영(2024). **가족정책론**. 서울: 신정.
- 류금란 (2019).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부모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범 (2022). 공감의 교회와 섬, 사김과 돌봄(교회의 미래, 미래의 교회). **활천**, 825(8), 104-107.
- 백은영 (2018). 이혼을 선택한 여성 한부모의 행복경험.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 장명선, 김희주, 김지혜, 박영미 (2018).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0(2), 77-108. <http://dx.doi.org/10.22791/ewhagl.2018.10.2.003>

- 성정현 (2021). **가족만들기와 복지의 재구성: 한부모가족복지의 새로운 형성**. 경기: 공동체.
- 손병덕 (2024). 한국교회의 이웃 사랑 실천과 사회적 책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6(2), 101-116. <http://dx.doi.org/10.59930/JCEWP.6.2.6>
- 송미승 (200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혁승 (2011).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제네바의 칼빈(John Calvin)과 스코틀랜드의 닉스(John Knox)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은규 (2019). 이혼자들의 이혼 후 성장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영선, 오윤선 (2023). 기독교 성인중기 여성의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복음과 상담**, 31(3), 157-196. <http://dx.doi.org/10.17841/jocag.2023.31.3.157>
- 유순희 (2012).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욱 (2020). 성경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자 인식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 김지현 (2022). 기독교인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탐색. **교육과학연구**, 53(3), 355-381. <https://doi.org/10.15854/jes2022.09.53.3.355>
- 이은순 (2018).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곤란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하나, 김승희 (2019). 한부모가족의 주거이력에 관한 연구: 한부모형성과정의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7(3), 67-81. <http://dx.doi.org/10.22313/reik.2019.17.3.67>
- 이효정, 김규보 (2024). 한부모가정 외동 자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복음과 상담**, 32(1), 107-137. <http://dx.doi.org/10.17841/jocag.2024.32.1.107>
- 장은영 (202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성과 기질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요섭 (2013).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 한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1-35.
- 정병준 (2021). **기독교 영성 산책**.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2017).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표재현 (2007). **믿음으로 승부하라: 쉽게 풀어 쓴 디모데전서**. 서울: 쿰란출판사.
- 황해익, 남미경, 서보순, 김병만 (2022). **아동권리와 복지**. 경기: 정민사.
- 황혜원 (2024). 한부모가정 초등 고학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발달궤적과 영향요인 분석: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43-58. <http://doi.org/10.2307/353132>
- Calvin, J. (1986). **기독교강요**(김종흡,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1559 출판).
-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 (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79-889. <https://doi.org/10.1016/j.cpr.2010.01.006>
- Dodds, E. R. (2021).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 (송유례 역, *Pagan and Christian in an age of anxiety*). 서울: 그린비. (원전 1962 출판)
- Giorgi, A.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Jackson, F. J. F., & Lake, K. (Eds.). (1922).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 Johnson, E. L. (2007).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https://doi.org/10.1097/00004583-200008000-00007>
- Masten, A. S. (2014). *Ordinary magic: Resilience in develop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ounce, W. D. (2009).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역, *Word biblical commentary*: 46). 서울: 솔로몬. (원전 1982 출판)
- Seligman, M. E. P. (2002). **긍정심리학: 진정한 행복만들기** (김인자 역, *Authentic happiness*). 안양: 물푸레. (원전 2002 출판)

- Silva, M. (Ed.). (2021).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s. 1-5). Grand Rapids, MI: Zondervan.
- Stadelmann, S., Perren, S., Groeben, M., & Klitzing, K. (2010). Parental separ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The impact of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49* (1), 92-108. <https://doi.org/10.1111/j.1545-5300.2010.01310.x>
- Stark, R. (1996).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The rise of Christianity*). 서울: 좋은 씨앗. (원전 1996 출판).
- VanGemeren, W. A. (Ed.). (2012).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s. 1-5). Grand Rapids, MI: Zondervan.

[Abstract]

Childrearing Experiences of Christian Single-parent Mothers

Yoo, Hyun Hee* Kang, Yeon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n depth the meanings of the child-rearing experiences of Christian single-parent mothers. To this end, ten Christian single-parent mothers who had attended church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had lived with and raised at least one school-aged child or adolescent (aged 6-18) for more than two years since becoming a single parent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12 components and 28 sub-components were derived. The 12 components are: 'a sad and difficult burden carried alone', 'self-blame for the environment of the father's absence', 'a feeling of sorrow for not being able to support one's children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mea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are avoided and withdrawn', 'painful struggles between expectations and reality of life for children', 'nurturing entrusted to God, not on my strength', 'being shaped as a parent who walks with God', 'a Christian faith community that provides strength and shelter', 'a public support network being a shield for parenting', 'burdensome children becoming a conduit of blessings', 'hoping for children to grow in faith and become independent', and 'hardship being a resource for my growth and an ability to embrace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Christian counseling and church care for single-parent mothers.

Key words: Christian single-parent mothers, child-rearing experience, Christian spirituality, qualitative research, Giorg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 Kyungnam University, Center for Campus Life and Culture, Counseling Center / Visiting Counselor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Professor